

서사구조로 본 <처용랑망해사>의 성격

박유미*

|| 차례 ||

- I. 문제제기
- II. <처용랑망해사>의 서사구조
- III. 무·불·도의 관계와 헌강왕의 위상
- IV. 민간신앙 전승에서 <처용랑망해사>가 지니는 의의
- V. 결론

【국문초록】

신라 하대에 이르러 불교 신앙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신라의 중심 신앙으로 자리했던 이전과는 달리 지지기반의 약화와 불신으로 인해 점점 중심의 자리에서 멀어져 갔다. <처용랑망해사>는 불교 신앙의 이 같은 세력 변화를 잘 보여주는 설화이다. 불교 신앙이 무속 신앙 및 도교 신앙에 밀려나는 양상을 첨예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설화는 헌강왕과, 처용을 중심으로 동해용과 남산신, 북악신, 지신 등이 등장한다. 전체의 이야기는 해결과 미해결이 반복되다가 중국에는 미해결이라는 결핍된 상태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주인공인 헌강왕은 샤먼이나 샤먼의 능력을 소유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그는 기울어져 가는 신라의 망국을 인지하고 망국을 지연 시키고자 노력했다. 먼저 신라의 중심 신앙이었던 불교 신앙을 통해 문제 해결을 꾀했다. 하지만 불교로서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헌강왕은 기층 신앙인 무속 신앙과 무속 신앙의 외피를 쓴 도교 신앙을 통해 분리된 구조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헌강왕의 위상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는 당대 기층문화의 저력을 인지하고 그를 이용해 구조의 통합을 꾀하려 했다. 하지만 충족된 상태가 지속될 수 없듯이 충족된 상황은 결핍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처용랑망해사> 설화는 『삼국유사』에 전하는 다른 어떤 설화보다도 불교 신앙이 무속 신앙이나 무속의 외피를 쓴 도교 신앙에 압도당하는 구조의 역전 현상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신앙의 역전 현상을 일연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기층문화 중심의 역사관으로 서술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불교가 압도당하는 모습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처용랑망해사>는 이처럼 일연의 불교 사고의 틀을 깨고 존재하는 작품이라는 데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또 설화를 통해서 당대 불교 신앙과 무속 신앙 및 무속의 외피를 쓴 도교 신앙인 민간신앙의 세력 다툼이 치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 신앙은 표층에서 그 세력을 잃어가는 추세로 나아가고 민간 신앙은 기층에서 상당한 세력으로 자리 잡아 표층으로 그 힘을 확장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 : 현강왕, 처용, 무속 신앙, 도교 신앙, 불교 신앙, 표층, 기층

I. 문제제기

<처용랑망해사>는 『삼국유사』¹⁾의 어느 대목보다 논란이 많으며,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있다. 향가 <處容歌>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해서, 설화·민속·연극의 측면에서 다각도의 해석이 이루어졌고, 역사적 사실과의 관련에 관해서도 견해의 차이가 심하다.²⁾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기존의 연구가 <처용랑망해사>를 하나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해체 해석함과, 사상적 측면에만 주안점을 둔데서 나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기존의 연구에서 <처용랑망해사>를 해체 해석한 것인가가 궁금해지는데, 그것은 처용을 주인공으로 삼게 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처용이 중심이 되면 이야기는 조각나게 되기 때문이다. 본고는 <처용랑망해사>를 해

1) 13세기 무렵에 일연 선사가 저술한 책으로 민중들 사이에 전승되던 구전자료들과 그 당시까지 남아 있던 기록자료들을 중심으로 편자 나름의 분류관에 입각해서 정리한 것이다.(김화경, 『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2002, p. 40.

2)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集文堂, 2004, p. 29.

체 해석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에서 출발해 논의를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

<처용랑망해사>는 하나의 완벽한 스토리라인을 구비했다. 서사를 분석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왕과 동해용왕의 이야기와, 처용과 역신의 이야기, 왕과 산신·지신과의 이야기이다. 여기서 중심인물은 왕이 된다. 현강왕을 주인공으로 한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현강왕이 중심인물인데 어찌 이야기가 조각나 해석될 수 있겠는가, 하나의 이야기로 간주함이 타당하다.

또 <처용랑망해사>는 『삼국유사』의 일반적인 서술 양상과는 사뭇 다르게 서술되어있다. 즉, 일반적인 서술인 불교 신앙 중심의 서술이 아니라 무속 신앙과 무속에 귀속되어 있는 도교 신앙이 중심이 되어 서술되어져 있어 무·불·도의 귀속관계가 정합성을 띠는 것이다. 기존의 논의는 대부분 불교에 귀속된 무속 신앙을 이야기 했는데 서사를 분석해 보면 불교에 귀속된 무속 신앙이 아니라 무속에 귀속된 불교 신앙이 나타난다. <처용랑망해사>에서 불교 신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오히려 무속 신앙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무속 신앙은 불교 신앙 이전부터 존재했던 신앙이므로 토속 신앙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삼국유사』의 편찬자인 일연이 승려이기 때문에 서술의 관점이 지극히 불교적이라는 것은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³⁾ 하지만 <처용랑망해사>의 토속 신앙 위주의 서술은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라 여겨진다. 왜 일연이 <처용랑망해사>를 토속 신앙을 우위로 서술하였는가. 이는 그 당시 불교 신앙의 쇠락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한다. 불교 신앙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면서 더 이상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기존에 존재해 왔던 토속 신앙인 무속 신앙과 무속 신앙과 긴밀하게 결부된 도교 신앙이 불교 신앙을 대신해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이러한 신앙

3) 김나영, 『『삼국유사』 피은 편의 이해』, 『돈암어문학』 21, 돈암어문학회, 2008, p. 135.

구조의 정합성은 이 이야기가 완결된 작품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처용랑망해사>의 서술에서 불교 신앙과 무속 신앙, 도교 신앙 사이의 갈등은 가시화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암투와 갈등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기존의 문제 해결의 중심이었던 불교 신앙이 그 자리를 호락호락 토속 신앙에게 전해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위 쟁탈은 암투와 갈등을 수반한다. 때문에 서술에 가려져 있을 뿐 치열한 우위 쟁탈 끝에 토속 신앙이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서 살폈던 세 가지 측면에서 <처용랑망해사>라는 설화 작품을 다루고자 한다. 이 세 가지 추정이 증명된다면 <처용랑망해사>의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II. <처용랑망해사>의 서사구조

<처용랑망해사>는 현강왕과 동해용, 처용과 역신, 현강왕과 지신, 산신이 등장하는 한 편의 설화라 할 수 있겠다. <처용랑망해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등장인물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등장인물들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파악된다면 인물간의 관계가 보다 선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등장인물들의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작품의 줄거리를 제시하기로 한다. 줄거리는 하나의 사건의 시작과 끝을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일련번호를 붙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1) <처용랑망해사>⁴⁾

A : 제49대 현강왕대 태평성대를 구가함(해결)

B : 현강왕의 개운포 출유(미해결)

4) 一然, 『三國遺事』, <處容郎望海寺> 紀異 第二.

B-①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서 길을 잃었다.(미해결의 암시)

B-② 일꾼이 동해용의 조화이니 좋은 일로 풀라고 아뢰

B-③ 왕이 절 짓기를 명함(문제해결의 노력)

B-④ 구름과 안개가 걷힘, 그곳을 개운포라 함(일시적 해결)

B-⑤ 용이 기뻐, 일곱 아들을 거느리고 나타남

B-⑥ 왕의 덕을 찬양하며 춤추고 노래함

C : 동해용의 아들 처용이 임금을 따라 서울로 감(미해결)

C-① 왕의 정사를 도움

C-② 왕은 미녀로 아내를 삼게 해 처용의 뜻을 잡아 두고자 함

C-③ 처용에게 급간의 직위를 준

C-④ 처용의 아내가 무척 아름다움

C-⑤ 역신이 처용의 아내를 홀모해 남몰래 동침함(미해결의 암시)

C-⑥ 처용이 밖에서 돌아와 그 모습을 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
남(문제해결의 노력)

C-⑦ 역신이 처용에게 감복하여 무릎 꿇음(일시적 해결)

C-⑧ 처용은 辟邪進慶의 능력을 획득함

C-⑨ 왕이 돌아와 용을 위해 절(망해사, 신방사)을 세움

D : 왕의 포석정 출유(미해결의 암시)

D-① 왕만이 남산신을 봄

D-② 남산신이 춤을 춤

D-③ 왕이 따라 춤춰 형상을 보임

D-④ 춤의 이름을 어무상삼, 어무산신 이라고 함

F : 왕의 금강령 출유(미해결의 암시)

F-① 북악신이 나타나 춤을 춤

F-② 춤을 옥도검 이라고 함

G : 왕의 동례전 출유(미해결의 암시)

G-① 지신이 나타나 춤을 춤

G-② 춤을 지백급간 이라고 함

H : 어법집(語法集)에 전하기를 산신이 춤을 추고 ‘지리다도파도파’라고

한 것은 장차 나라가 망할 것을 알려준 것이라고 이르고, 자신이나 산신이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이라는 것을 춤을 추어 깨우치려 했으나 나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나라가 망함(미해결의 당위성 설명)

설화의 내용을 단락별로 정리해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A-B까지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C이며 세 번째는 D-H까지의 이야기이다. C-⑨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첫 번째 이야기에 귀속됨이 옳을 듯하다. 세 부분의 이야기는 각기 헌강왕과 동해옹의 활동, 처용과 역신의 활동, 헌강왕과 산신, 지신의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세 부분 가운데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은 연관성이 상당히 떨어져 보인다. 첫 번째 부분에는 헌강왕이 중심이 되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처용이 중심이 되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이 이러하냐 한 편의 이야기는 조각나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일연의 서술 시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일연은 ‘왕 -> 처용 -> 왕’으로 중심인물을 달리 하면서 서술해 이야기를 조각나 보이게 한데 한 몫을 담당했다. 중심인물이 다르다는 것은 자칫 다른 이야기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때문에 기존의 논의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처용랑망해사>를 조각난 이야기로 보고 논의를 펼쳤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일연의 의도⁵⁾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일연의 의도는 서술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하겠다.

<처용랑망해사>를 한 편의 설화로 규정하는 데 인물의 입체감만을 거론하는 것은 뭔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때문에 이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제기된다. 언뜻 보면 세 개의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는듯하지만

5) 일연은 <처용랑망해사>에서 각각의 인물들에 입체감을 부여하기 위해 중심인물을 달리해 서술한 결과가 사람들로 하여금 세 편의 각기 다른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하나의 이야기에 포함시킨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했기 때문이다.

<처용랑망해사>의 설화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현강왕을 중심으로 서사구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핀 A-B, D-H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존 연구에서 다른 이야기로 간주한 C인 처용 중심의 이야기에서 C-②, C-③은 현강왕이 배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즉, 처용이 왕을 보좌하기 위해 신라의 서울로 오게 된 것과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것, 급간의 벼슬을 부여받게 된 것 모두가 왕인 현강왕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현강왕의 존재가 없다면 처용의 존재 또한 없었을 것이다. 현강왕의 존재를 부각한다면 별개의 이야기로 비춰졌던 세 개의 이야기는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

<처용랑망해사>는 현강왕을 중심으로 서사구조가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다시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강왕은 出遊시 동해용과 남산신, 북악신, 지신을 만난다. 이때 遊로 표현된 국왕의 행차는 단순한 놀이일 수 없으며 국가의 수호신이나 각 지역의 신령스런 존재와의 만남을 갖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⁶⁾는 견해를 따르면 현강왕의 공간이동은 상당한 시사점을 부여해준다. 현강왕은 出遊시 신들과 遭遇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으나 결국 준비된 만남이었다는 것이다. 준비된 만남은 그 이유를 수반한다. 그렇다면 왜 신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신들을 만났느냐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 핵심을 살피기 위해 현강왕의 공간이동에 따른 직무 수행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본다.

현강왕의 첫 번째 출유지는 개운포이다. 태평성대 즉, 해결의 중심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했기에 개운포라는 곳으로의 공간이동이 수반되었다. 따라서 현강왕의 공간이동은 미해결로 인해서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강왕은 개운포에서 길을 잃게 되는 시련을 겪는다. 시련은 곧 미

6) 全基雄, 「眞聖女大王代の 花郎 孝宗과 孝女知恩 說話」, 『한국민족문화』 25집,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2005, p. 209.

해결을 암시하는 것이다. 미해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동해용을 위해 절 지을 것을 명한다. 그리고 운무가 건혀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리고 신라로 돌아와 절을 축조한다. 하지만 동해용의 아들인 처용을 데리고 서울로 돌아온다는 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앞서 절 축조로 인한 해결은 일시적 해결임을 알 수 있다. 처용의 동해에서 신라로의 이동은 문제의 중심이 경주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사건이 다시 미해결의 상태로 전이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역신의 등장은 미해결의 상태를 좀 더 확실히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 역신이 처용의 이름다운 처를 사모하여 몰래 동침하게 된다. 일반적이 사람이었다면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집에 돌아와 밖에서 안으로 이동을 한 처용은 그 모습을 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물러나을 따름이다. 자신의 처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을 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처용은 그것을 실행했다. 그리고 그의 행동으로 인해 역신은 감복하여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처용의 형상만 그려져 있어도 그 문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사라진다. 이것은 두 번째 해결로 볼 수 있다. 화를 내야 마땅한 처용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문제해결을 시도 하고 결국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렇다면 처용의 춤과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궁금하다. 역신은 처용의 행동에 감복하여 무릎을 꿇고 처용의 형상만으로도 문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한다. 이것으로 처용은 辟邪의 기능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벽사의 기능 이외에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進慶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인물이 된다. 결국 이러한 직능의 부여는 그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름으로 가능했다. 때문에 처용의 춤과 노래는 굿의 한 행위로 간주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처용의 동해에서 경주로 즉, 바다에서 육지로, 밖에서 안으로의 공간이동은 문제의 발생지가 육지 즉 경주라는

것을 알려주고, 미해결의 과제가 부여되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이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의 중심지에서 역신을 만났다는 것은 미해결을 암시해 이러한 추정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처용은 미해결의 상황을 곳을 연행함으로써 해결의 상황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辟邪進慶의 직능까지 부여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해결되었다. 하지만 헌강왕의 포석정 출유는 처용의 문제 해결도 역시 일시적 해결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포석정에 출유한 헌강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또 문제가 제기된다. 하지만 미해결과 해결이라는 두 개의 중심축으로 본다면 처용으로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간파한 헌강왕이 스스로 문제 해결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보면 문제는 쉬이 풀릴 수 있다. 즉, 처용의 문제해결은 일시적 해결로 다시 상황은 미해결의 상태로 전환되었다. 문제의 중심지인 포석정으로 헌강왕은 공간을 이동한다. 그리고 포석정에서 남산신을 보게 되는데 남산신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헌강왕에게만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춤을 춘다. 헌강왕은 남산신의 춤을 따라 추어 형상을 보였는데 그 춤을 어무상심, 어무산신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런데 남산신의 모습을 왜 헌강왕만이 볼 수 있었는가가 의문이다. 일반 사람들은 신의 모습을 볼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이 헌강왕에게만 보였다는 것은 헌강왕이 일반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신의 춤을 보고 그 형상을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으로 보건대 헌강왕의 춤사위는 곳의 연행으로 봄이 타당할 것 같다. 헌강왕이 무당이나 무당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당연할 것이며, 그러한 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빌어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헌강왕은 춤을 추어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신의 경고를 전달해 준 것이다. 그런데 다시 그는 금강령으로 공간이동하게 된다. 앞서 포석정으로의 이동에서도 그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했

다. 그런데 또 금강령으로의 공간이동을 하게 된다.

현강왕의 공간이동은 여전히 미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 과제를 짊어지고 다시 공간이동을 택한다. 그리고 그 공간이동에서 다시 북악신을 보게 되고 북악신이 춤을 춘다. 그리고 그 춤을 옥도령이라고 했다고 한다. 서사에서 현강왕의 직접적인 행동은 나타나지 않지만, 남산신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강왕이 이 춤의 형상을 보이고 사람들이 그 춤을 옥도령이라고 했음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동례전으로 이동해 지신을 대면하고 지신이 춘 춤을 보게 되고 남산신의 구조와 동일하게 현강왕이 그 춤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이 그 춤을 일러 지백급간이라고 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현강왕이 다시 문제 발생 현장으로 돌아와 포석정 -> 금강령 -> 동례전이라는 3번의 공간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현강왕은 신들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통해 보여준다. 하지만 H를 통해 현강왕의 3번의 공간이동과 춤을 춤으로써 문제 해결을 하려했던 그의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감을 말해주고 있다. 즉, 남산신, 북악신, 지신의 춤이 신라 땅국을 미리 알려 주려는 신들의 의도였다. 그래서 현강왕은 신들의 의도를 사람들에게 춤으로써 보여주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처용랑망해사>는 현강왕이 공간이동을 통해 미해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은 절을 창건한다는 것으로 보아 불교 신앙적인 해결을 꾀한 것으로 간주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에서부터 노래와 춤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은 무속 신앙적인 요소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신, 지신의 등장으로 보아 도교 신앙적인 요소 또한 이야기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속 신앙과 도교 신앙, 불교 신앙이 어떻게 혼재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신앙적 요소를 가지는 내용을 정리하면 B-③, B-⑤, B-⑥, C-⑥, C-⑧, C-⑨, D-①, D-②, D-③, F-①, G-①이다. 여기서 불교 신앙

적인 요소를 추출하면 B-③, C-⑨이고, 무속 신앙적인 요소는 B-⑥, C-⑥, C-⑧, D-③이다. B-⑥을 B-③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해용’과 ‘처용’⁷⁾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석한다면 무속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교 신앙적 요소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D-①, D-②, D-③, F-①, G-①이다. 그러나 도교 신앙은 무속 신앙과 습합되어 분명하게 분리되지 않으므로 무속의 외피가 덧입혀진 도교 신앙⁸⁾적인 요소로 규정함이 옳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불교 신앙적 요소는 2개, 무속 신앙적인 요소는 4개, 도교 신앙적 요소는 5개가 된다. 따라서 도교 > 무속 > 불교 신앙 순으로 신앙의 우위를 가릴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남산신, 북악신, 지신이 등장한 서사를 동일한 구조로 본다면 북악신과, 지신의 등장지 현강왕의 춤을 추어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본다면 무속 > 도교 > 불교 신앙의 순으로 우위를 가릴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처용랑망해사>에서 무·불·도 3자의 관계는 무속이 가장 우세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처용랑망해사> 서사구조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현강왕은 번성을 누리고 있었다. 이것은 해결의 구조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강왕의 개운포 출유는 해결에서 미해결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이것은 절 창건을 약속하면서 해결로 나아간다. 다시 현강왕이 개운

7) ‘동해용’은 망해사 창건을 위해 운무를 가리어 왕에게 길을 잃게 한다. 그러나 아들인 처용이 수행하는 직무는 무속 신앙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또 용신신앙이 불교도래 이전의 재래 신앙이었다는 점과 <처용랑망해사>를 굿 연행의 이야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들을 무속 신앙의 요소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8) 남산신, 북악신의 산신 사상과, 지신은 오랜 옛날부터 널리 신봉되어 왔는데 중국의 도교 신앙이 유입되면서 습합·혼용됨으로 온전하게 도교 신앙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都瑬淳, 『韓國道敎의 史的 研究』, 『도교학연구』 7, 한국도교학회, 1991, pp.46-47.

포에서 경주로 돌아오면서 처용을 데리고 왔다는 데서 앞의 해결은 일시적 해결이었고, 다시 미해결로 전이되었음을 알려준다. 처용은 미해결의 문제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 즉, 굿을 연행함으로 해결하게 된다. 그러나 이 또한 산신, 지신의 등장으로 일시적 해결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시 헝강왕이 문제의 중심지에 등장해 남산신, 북악신, 지신을 대면하는 것으로 처용의 해결은 일시적 해결이 되고, 미해결의 상황으로 전환된다. 헝강왕은 여기서 춤을 추는 굿을 연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신의 의도를 전달해 준다. 하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마무리된다. 따라서 <처용랑망해사>는 해결 -> 미해결 -> 일시적 해결 -> 미해결 -> 일시적 해결 -> 미해결 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크게 보아 상승구조에서 하강구조로 전환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불교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결국 무속 신앙의 힘에 의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로 볼 때 불교 신앙은 그 세력이 매우 약화되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무·불·도의 관계와 헝강왕의 위상

2장에서는 서사구조에 나타난 무·불·도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무속 신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도교 또한 무속 신앙의 외곽을 쓰고 상당한 비중으로 서사에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불교 신앙은 무속 및 도교 신앙에 비해 위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불교 신앙의 세력 약화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서사구조만으로는 세 신앙의 위력의 편중만을 알 수 있을 뿐 왜 편중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때문에 <처용랑망해사> 서사에서 왜 불

교의 위력이 약화되고 무속·도교의 위력이 강해지는 신앙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는지를 현강왕대의 정치·사회와 연관 지어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서사구조에서는 갈등 양상이 가시화되어 드러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숨어 있는 갈등 양상을 어떻게 가시화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겠다. 이것은 신라 전반을 관통하는 불교 신앙과의 관계 속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신라는 불교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치·문화·사회 전반에 걸쳐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다. 현강왕 이전인 신라 중대는 정치상황과 불교사상이 상호반영·상호침투 되는 연기변증법적 관계였다.⁹⁾ 그러나 8세기 말 이후로 접어들면서 왕위 다툼이 격화되어 혼란을 겪었으며, 신라 말 각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등장해 독자적 세력을 형성했고, 이들이 새로운 불교인 선종을 후원해 선종이 융성할 수 있었다.¹⁰⁾ 뿐만 아니라 민간에는 미륵신앙이 선행¹¹⁾되었으며 풍수지리사상¹²⁾ 또한 대두 되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신라 하대 권력구조와 종교구조는 분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력구조와 종교구조의 분리는 각기 다른 구조의 이질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신라 하대의 권력 구조는 중앙의 귀족중심구조와 지방의

9) 박희택, 「신라 하대의 불교와 정치」, 『동양정치사상사』 7, 2008, p.132-133.

10) 김남윤, 「신라 말 고려 초의 사회변동과 불교」, 『내일을 여는 역사』 17, 내일을 여는 역사, 2004, pp. 289-290.

11) 신라 하대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실질적인 피해자는 일반 민중들로 그들은 과중한 세금으로 빈곤을 면치 못했다. 때문에 이 시기 일반 민중에게는 末世意識이 크게 작용하였고 현세의 고통에서 구제되기를 희망하는 바램에서 미륵신앙이 더욱 성행할 수 있었다. (金惠婉, 『新羅 下代の 彌勒信仰』, 『成大士林』 8, 成均館大學校 史學會, 1992, pp. 6-37.

12) 신라하대에 와서 풍수지리설은 禪僧들을 통하여 全國 各處의 地方豪族들에게까지도 전파되었는데, 호족세력들은 경주 진골귀족들의 閉鎖性에 대한 반발과 그에 대한 그들의 독립적 세력형성을 합리화하여 주는 논리적 근거로써 풍수지리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崔柄憲, 「道詵의 生涯와 羅末麗初의 風水地理說」, 『한국사연구』 11, 한국사연구회, 1975, p. 142.

호족과 민중의 구조를 들 수 있을 것이다¹³⁾ 중앙과 지방 사이의 사상적 괴리가 심하다는 것은 곧 이중적 구조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중적으로 나누어진 구조를 가진 나라는 분열이 초래되기 용이하다. 때문에 왕은 분열이 초래되기 전에 이중적인 구조를 하나로 묶을 대안을 모색해야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강왕은 어떠한 방법을 취해 분열의 야기를 막으려 했는가가 문제인데, 서사구조에서 보인 왕의 출유가 그것을 알려주는 좋은 단서가 될 것이다. 왕은 처음에 개운포라는 장소로 출유한다. 원래 왕이 머무르는 장소는 육지의 경주이다. 경주에 머무르던 왕이 개운포라는 장소로 이동한 것이다. 때문에 개운포로의 이동은 이유를 수반한다.

이유는 바로 중심이 아닌 지방의 문제발생이라 할 수 있겠는데 B-①에서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라는 구절은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암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개운포는 바로 문제발생의 근원지였던 것이다. 왕은 문제발생의 근원지였던 개운포로 이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며 결과적으로 문제는 일시적 해결이라는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개운포라는 장소가 어떤 곳이었는가 또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개운포는 바닷가의 장소로 민간의 용 신앙과 관련된 곳이다.¹⁴⁾ 민간의 용 신앙 중심지로 왕은 이동한 것이다. 때문에 앞에서 밝힌 이중적 구조를 화합하기 위해 왕의 출유가 있었다는 것은 증명된 것이다.

왕의 다음 출유 장소는 포석정이다. 하지만 그전에 서사구조에서 알 수

13) 왕실은 진골귀족의 관직독점과 田莊 확대에 대해 선사들과 결연하여 진골귀족의 세력을 약화시키려 했다. (金周成, 『신라시대 왕실의 지방통치』, 『신라문화』 2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5, p. 2.)

14) 개운포 한 가운데 위치한 처용암은 대왕암에 비견될 수 있는 신성한 성역으로 용신호위와 용자탄생의 갈망이 응결되어 처용의 출생지라고 전승되는 개운포 용신신앙의 중심이다. (김유미, 『처용전승의 전개양상과 의미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pp. 25-26.)

있었듯이 처용으로 하여금 왕의 직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던 왕의 행동을 미루어 처용과 왕의 존재를 일치시켜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¹⁵⁾ 이렇게 보면 처용의 이동은 곧 왕의 이동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왕이 분열을 막기 위해 개운포 일대 지역의 중심인물을 중앙으로 이동시켜 중앙과 지방의 화합¹⁶⁾을 꾀하려 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으로 해석되든 왕의 이동은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처용의 경주로의 이동은 신라의 중심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서사에서 역신과의 만남으로 가시화 되었는데, 처용은 춤과 노래를 불러 역신을 감복케 하고 辟邪進慶의 직능을 부여받는다. 역신이 물러남으로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된다. 그렇다면 역신으로 가시화되었던 당대 신라에서 발생한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문제는 아마도 중앙에서의 권력다툼이었을 것이다.¹⁷⁾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용이 지방에서 중앙으로 이동되었고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되었다.

하지만 왕은 다시 서사에 등장한다. 처용이라는 인물로도 문제가 일시적 해결로 끝나 버렸기 때문이다. 왕은 다시 등장해 포석정으로 출유한다. 포석정은 효종랑의 화랑도가 국가를 위한 종교적 성격의 회합을 갖는 곳, 팔관회 같은 종교적 의례가 치러지던 곳이며, 화랑과 관련된 사당이 있었던 곳으로 역사적으로 신성한 곳¹⁸⁾이다. 여기서 왕은 남산신을 만난다. 남산

15) 처용이 중심이 되어 서술된 부분에서는 처용의 이동을 왕의 이동과 동일하게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왕은 처용에게 아름다운 아내와 벼슬을 주어 처용을 머무르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16) 왕실은 지방통치력 약화를 지방의 선사와의 결연하여 그들에게 일정한 주석처를 제공하고 지방관을 보좌하게 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하였다. (金周成, 앞의 논문, 2005, p. 11.)

17) 신라시대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은 진골귀족의 관직독점과 田莊의 확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金周成, 앞의 논문, 2005, p. 11.)

은 동악(토함산), 서악(선도산), 중악(단석산), 북악(금강산)과 함께 경주 五岳¹⁹⁾중 하나이다. 이렇게 신성한 신이 ‘남산신이 왕 앞에서 나와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왕의 앞에 등장해서 춤을 추었다는 것은 상당한 시사성을 내포한다고 하겠다. 신들의 춤은 일반적인 현상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은 필시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등장했을 것이다. 그런데 ‘좌우의 신하들은 보지 못하고, 왕이 홀로 남산신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구절²⁰⁾에서 보듯이 남산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현강왕뿐이었다. 여기서 왜 왕에게만 신의 모습을 드러내보였는가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신의 모습을 현강왕만이 볼 수 있었다는 것은 현강왕이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말해준다. 현강왕은 사면적 능력을 소유했거나 스스로 사면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현강왕이 ‘스스로 춤을 추어 그 형상을 나타냈다’라는 구절을 통해 신의 예언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언을 끝내고 왕은 또다시 금강령으로 이동한다.

금강령은 북악을 말한다. 북악은 남악과 함께 경주의 오악 중 하나이다. 여기서 현강왕은 다시 신성한 북악신을 조우하게 된다. 거듭된 신들의 출현은 심각한 사태에 대한 예언임을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현강왕은 다시 북악신의 춤을 자신의 몸을 통해 사람들에게 신의 예언을 전해준다. 그리고 다시 경주 월성의 동례전으로 이동한다. 동례전은 종교적 의례와 관련 있는²¹⁾ 곳으로 신성한 곳이다. 여기서 왕은 지신과 만나고 지신의 춤을 통한 예언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남산신, 북악신을 통해 경

18) 姜敦求, 『鮑石亭의 종교사적 이해』, 『韓國思想史學』, 1993, pp. 47-66.

19) 최강식,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p. 300.

20) 이 구절을 통해 현강왕이 次次雄 또는 慈充이라고 하던 무당 구실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조동일, 앞의 책, 2004, p. 37.)

21) 全基雄, 『憲康王代の 정치사회와 ‘處容郎望海寺’條 설화』, 『신라문화』 2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5, pp. 71-72.

주를 중심으로 중요한 산신들이 등장했으며, 경주에 있는 신성한 장소에서 지신 또한 등장한다. 이 세 신들이 출현해 춘 춤은 이후 일연의 ‘지신이나, 산신이 나라가 장차 망하리라는 것을 알아 춤을 추어 깨우치려 했다. 그런 데도 나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상서로운 일이 나타났다면 환란에 탐닉했으므로 마침내 나라가 망했다’라는 부분의 해석을 통해 망국의 예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지방으로의 출유는 한 번밖에 없는 반면에 경주 중심으로의 출유는 잦았다. 이것으로 보아 지방에서의 문제 보다 중앙에서의 문제가 더욱 심각했음을 알 수 있겠다. 심각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현강왕대 정치사를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강왕대의 정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위홍을 들 수 있다. ‘그는 왕실의 고유 신앙에 대한 경사와 신성한 왕실혈통을 더욱 강조하였는데 그의 주도 아래 현강왕은 종교적 현상들에 탐닉하였고, 국민들은耽樂하였으며 왕경에는 밤낮으로 가무가 그치지 않았다. 왕은 諸神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성덕으로 감복시키며 상위에서 통제하려 하였다. 이는 왕의 신이함과 샤만적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며, 왕실은 신성한 권의로 포장되었다.’²²⁾ 는 연구에서 당대는 왕실의 혈통을 중시하였으며, 고유 신앙을 공경하고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논의에서처럼 ‘현강왕은 종교적 현상들에 탐닉하였고, 왕은 諸神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성덕으로 감복시켜 왕의 신이함과 샤만적 능력을 과시하려 했다’는 내용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강왕의 출유를 살펴본 결과 현강왕이 샤먼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산신, 북악신, 지신을 유일하게 현강왕만이 대면하고 그들의 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왕은 ‘국민들은耽樂하였으며 왕경에는 밤낮으로 가무가 그치지 않았으며’라고

22) 全基雄, 앞의 논문, 2005, pp. 74-79.

한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귀족이 향락에 빠져 있어 왕권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면적인 힘을 통해 사람들에게 예언을 전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헝강왕의 중앙과 지방으로 오갔던 출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것은 당시 신라가 정치적, 종교적으로 분리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치는 중앙과 지방이 분리되어 있었으며 종교 또한 중앙의 화엄종과 지방의 선종, 그리고 무속 신앙과 도교 신앙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따라서 당시 신라의 사회구조를 중앙과 지방으로 대표되는 이중적 구조로 볼 수 있다. 왕인 헝강왕으로서는 이중적 구조를 하나로 묶어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였다. 먼저 신라의 기반 신앙인 화엄종을 위시해 중앙집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헝강왕 당대에 화엄종은 귀족과 결탁해 많이 퇴색했다. 그리고 민중들 또한 무속 신앙이나 도교 신앙으로 선회해 불교 신앙²³⁾을 위시해 지방을 통치하고 왕권을 강화하기는 무리가 있었다. 왕권의 강화가 시급했던 헝강왕으로서 두 집단의 사상 괴리는 집단의 분리를 야기하므로 시련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군다나 강력한 왕권을 지향하던 헝강왕에게는 더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헝강왕은 불교 신앙의 문제성을 감지하고 개운포에서 무속 신앙의 인물인 처용을 신라의 서울인 경주로 데리고 온다. 그리고 왕의 사면적 능력을 처용으로 대신하게 한다. 여기서 처용은 무속 신앙의 힘으로 신라의 중심을 다스리고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헌한다. 하지만 완전한 해결이 아닌 일시적 해결이었으므로 문제는 다시 불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왕은 직접 포석정, 금강령, 동례전으로 이동하여 신들과 조우한다.²⁴⁾ 헝강

23) 신라 중기 왕권과 밀접하게 관련 있었던 화엄종을 말한다. 하지만 이 당시 화엄종은 중앙귀족과 밀착되어 있어 각종 부패의 근원이 되었으며, 지방은 중앙의 화엄종과 달리 호족의 세력을 등에 업은 선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왕은 신들의 망국에 대한 예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곳을 여행해 보여 준다. 이러한 왕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왕은 신라의 중심 신앙인 불교 신앙으로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감지했다. 중앙 귀족과 결탁한 불교 신앙은 이미 퇴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왕은 기층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을 것이다. 기층은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다. 국가의 교체 시에는 항상 저변에 있던 기층의 힘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기층의 무한한 힘을 가진 무속 신앙 및 도교 신앙은 이러한 현강왕의 의지와 부합되는 신앙들이었을 것이며, 현강왕 자신이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였으므로 더 용이하게 그 신앙들을 기층에서 표층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표층과 기층²⁴⁾의 합치를 꾀해, 분리된 구조를 하나로 묶으려고 했던 것이다.

표층	정치권
	불교 중시
	중앙
기층	민중
	무속 · 도교 중시
	지방

현강왕은 기층의 무속 신앙과 도교 신앙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지방을 중앙과 연결시켰다. 그의 궂 행위는 바로 이러한 연결을 설명해 주는 단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완벽한 중앙집권체제를 갖추고자

24) 산신과 지신은 민간 신앙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후에 도교가 들어오면서 민간 신앙과 도교와의 관계가 모호해졌다. 때문에 여기서는 도교 신앙을 무속의 외피를 쓴 도교 신앙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25) 민중 없는 정치권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민중을 기층으로 보고 정치권을 이러한 기층을 가시화한 표층으로 보았다.

했다. 완벽한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분리된 구조의 단단한 결속이 필요할 뿐 아니라 통치권자의 무한한 능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헌강왕은 일단 무속과 도교 신앙을 중앙으로 끌어와 지방과 중앙을 연결시킨 후 자신의 샤먼적 능력을 통해 祭·政을 일치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표충은 결국 심층의 전제하에서 존재한다고 볼 때 그가 선택한 방법인 무속과 도교는 심층의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었다. 즉, 샤먼의 직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그로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다. 그는 심층의 무속과 도교를 이용해 신라를 통합하려했던 것이며, 헌강왕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헌강왕이 샤먼이었다면 신라의 멸망이라는 필연적 귀결을 미리 간파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연시키기 위해 제정일치를 기반으로 심층의 힘을 표충으로 끌어 올리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충족된 상태가 지속될 수 없듯이 충족된 상황은 결핍의 상황으로 내닫게 된다.

IV. 민간신앙 전승에서 〈처용랑망해사〉가 지니는 의의

〈처용랑망해사〉 설화는 일국의 군왕인 헌강왕이 심층의 힘인 무속과 도교 신앙에 입각해 신라 망국을 지연시키려는 의지의 과정이 그려져 있다고 하겠다. 때문에 설화의 주인공은 헌강왕이다. 하지만 헌강왕만을 중심에 놓고 서술하지 않았다. 처용이라는 인물을 중심에도 놓고 서술함으로써 처용이 중심이 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런 현상은 화자가 헌강왕을 배후에 배치하고 처용을 표면에 드러내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화자는 처용이라는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해 처용을 표면에 드러냈겠느냐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화자는 왜 처용이라는 인물을 표면화 하였는가 그것은 화자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불교 신앙 때문이라

고 볼 수 있다. 화자가 불교 신앙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처용이라는 인물이 표면에 가시화 되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처용랑망해사>의 서사구조를 살펴보면 불교 신앙적 요소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서사구조에서는 일연의 불교적 사고와는 다르게 무속 > 도교 > 불교 신앙의 순으로 무·불·도 3자의 관계는 무속이 가장 우세함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일연의 불교적 사고가 서술구조에서 드러나지 않았을까가 의문인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삼국유사』에 전하는 다른 민간신앙 전승 설화와의 비교가 요청된다. 비교를 통해서 일연의 불교적 사고가 왜 서술에 가시화되어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불교 신앙이 무속 신앙에 압도되어 서술되었는가가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교 신앙과 무속 신앙 및 무속의 외피를 쓴 도교 신앙으로 대표되는 민간 신앙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룬 작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비교가 목적이므로 관계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해 보니 모두 네 편이었다. 내용을 정리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1) <전후소장사리>²⁶⁾

보요선사가 남월(南越)에서 대장경을 구해 돌아오는 길이었다. 갑자기 바람이 일어 조각배가 뒤집힐 위기에 놓였다. 선사는 신령이 대장경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위기에 직면 하게 한 것이라 여기고 주문으로 정성껏 축원하여 용까지 받들고 돌아왔다. 바람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가라앉았다. 대장경을 안치할 곳을 구하다가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연사를 세웠다. 용왕은 대장경을 따라와서 이곳에 머물렀는데 자못 신령하고 이상한 일이 많았다.

(자료2) <어산불영>²⁷⁾

국경 안 옥지(玉池)가 있고 못 속에는 국경 안에 옥지(玉池)가 있었고 못

26) 一然, 『三國遺事』, <前後所將舍利> 塔像 第四.

27) 一然, 『三國遺事』, <魚山佛影> 塔像 第四.

속에는 독룡(毒龍)이 살고 있었다. 만어산(萬漁山)에 나찰녀(羅刹女) 다섯이 있어 독룡과 왕래하면서 사귀었다. 때문에 때때로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려 4년 동안 오곡이 익지 못했다. 수로왕이 주문을 외어 그것을 금하려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처를 청하여 설법하자 나찰녀는 오계를 받고 그 후로는 재앙이 없어졌다.

(자료3) <보양이목>²⁸⁾

보양(寶壤)이 중국에서 불법을 전해 받아 돌아오는 길에 서해 용궁에 초대되어 불경을 외운다. 서해용은 금빛의 비단 가사 한 벌과 아들 이목(離目)을 시봉으로 삼아 돌아가게 했는데 용왕은 삼국이 시끄러운 것은 불법에 귀의한 임금이 없어서 라고 하고 이목과 더불어 돌아가 작갑(鵲岬)에 절을 지으면 능히 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몇 해가 되지 않아 불법을 보호하는 어진 임금이 나와 삼국을 평정할 것이라고 한다. 보양이 돌아와 작갑사(鵲岬寺)를 세우니 태조가 삼국을 통일하고 절에 다섯 갑(岬)의 밭 5백 결(結)을 합해 절에 바쳤다. 때문에 운문선사(雲門禪寺)라 하고 가사(袈裟)의 신령스러운 음덕을 받들게 했다. 당시 이목이 절 작은 못에 살며 법화(法化)를 음(陰)으로 도왔다. 어느해 가뭄이 극심하자 보양이 이목으로 하여금 비를 내리게 했는데 화난 천제가 이목을 죽이려 했다. 보양은 배나무를 이목이라고 속였다. 그러자 배나무가 벼락을 맞아 죽게 되었다. 이목이 죽은 배나무를 쓰다듬자 다시 살아났다.

(자료4) <혜통항룡>²⁹⁾

혜통이 삼장에게 인결(印訣)을 받았다. 그때 당나라 황실 공주가 병이 나 삼장에게 치료해주길 청했는데 삼장이 혜통을 천거했다. 혜통은 흰 팔 한말을 은그릇에 담고 검은 콩 한 말을 금그릇에 담아 주문을 외자 흰색과 검은색의 신병으로 변하였는데 그들로 하여금 병마를 쫓으니 교룡(蛟龍)이 달아나고 병이 나았다. 용은 혜통을 원망해 신라 문잉림(文仍林)으로 와 인명을 심하게

28) 一然, 『三國遺事』, <寶壤離目> 義解 第五.

29) 一然, 『三國遺事』, <惠通降龍> 神呪 第六.

해쳤다. 정공(鄭恭)이 당나라에 사신가 혜통을 만나 독룡의 패해를 말했다. 혜통이 정공과 더불어 와 용을 쫓으니 용이 정공을 원망해 버드나무로 변신하여 정공의 문 밖에 자라났다. 정공은 알지 못하고 버드나무를 소중히 아낀다. 그때 효소왕이 즉위해 신문왕을 위해 산릉을 닦고 장례길을 내는데 정공의 버드나무가 길을 막고 있어 베고자 했다. 정공이 극심하게 반대하자 화가 난 왕은 정공의 목을 베고 혜통 또한 죽이려고 한다. 혜통이 주술로 죽이려 온 병사들을 혼내주자 도망을 간다. 왕녀가 병이 나자 임금이 혜통을 불러 치료하게 했다. 병이 낫자 혜통이 그간의 정황을 이야기 했다. 왕은 잘못을 뉘우치고 정공의 처자에게 죄를 면해주고 혜통을 국사로 삼았다. 용은 기장산에 가 웅신(熊神)이 되어 참혹한 해독이 더욱 심하여 백성들이 몹시 괴로워했다. 혜통이 산 속에 들어가 용을 타일러 불살계(不殺戒)를 받게 하니 웅신의 해가 그치었다.

네 편의 자료는 모두 불교 신앙과 민간 신앙과의 관계가 두드러지는 것들이다. 여기서 불교 신앙과 연관된 인물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민간 신앙과 연관된 인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때문에 민간 신앙과 연관된 인물을 찾기 위해서는 가시화되어 있는 불교 신앙과 연관된 인물들부터 소거해야 하겠다. 자료1에서는 보요선사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승려가 거론된다. 때문에 불교 신앙과 관련된 인물은 보요선사가 되고 그에 반하는 세력으로 용이 등장하는데 용을 민간 신앙³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자료2에서는 불교 신앙과 연관된 인물로 부처가 직접 거론되고, 이에 반하는 민간 신앙으로는 독룡이 될 것이다. 자료3과4에서도 불교 신앙과 연관된 인물로 보요선사와 혜통이 등장하고 이에 반하는 민간 신앙과 관계된 세력으로는 용이 등장하고 있다.

30) 용은 수변지역과 관련된 능력있는 자로서 왕자의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고 민속에서는 수신으로 관념되고 있다. (姜英卿, 『新羅 傳統信仰의 政治·社會的 機能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1, pp. 48-54)

네 편의 자료는 모두 불교 신앙과 민간 신앙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불교 신앙과 관계된 승려나 부처, 그리고 불교 신앙에 반대되는 세력으로 용이 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먼저 자료 1을 중심으로 <처용랑망해사>의 서사구조와 비교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처용랑망해사>의 서사구조는 해결->미해결->일시적 해결-> 미해결 ->일시적 해결 -> 미해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자료1의 구조는 ‘갑자기 조각배가 뒤집힐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여 안정된 해결의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미해결로 그리고 다시 ‘주문을 외우고 용을 축원하여 받들어 돌아오니 바람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잦아졌다’라고 하여 다시 안정된 해결로 나아간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료1의 구조는 해결 -> 미해결 -> 해결의 구조를 가진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처용랑망해사>의 구조와는 달리 불교 신앙의 힘으로 사건이 해결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 신앙은 절의 연못에 살면서 ‘자못 신령스러운 일이 많았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불교에 포섭되어 자신의 능력을 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자료2에서는 ‘독룡과 나찰녀의 왕래로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려 4년 동안 오곡이 익지 못한다’라고 하여 미해결의 상황이 먼저 놓이게 된다. ‘왕이 주문을 외워 해결’ 하려고 했으나 실패해 여전히 미해결로 지속된다. 그때 ‘부처의 설법’으로 사건이 해결로 마무리 되고 재앙은 사라지게 된다. 이것을 구조화 시키면 미해결 -> 미해결 -> 해결이 된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화적인 인물인 수로왕이 등장해 주문을 외웠지만 재앙을 막을 수 없었는데 부처의 설법으로는 재앙이 그쳤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의 중심이 불교 신앙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민간 신앙은 오곡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악행을 저지른다. 하지만 불교 신앙에 대해서는 별달리 저항을 하지 못한다. 때문에 이 자료에서 민간 신앙은 불교 신앙에 압도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자료3은 ‘보양이 서해 용궁에 초대되어 불경을 외우고 금빛의 비단 가사

한 벌과 아들 이목을 받게’ 되는 것에서 안정된 해결로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결의 상태는 계속이어 가다가 ‘보양이 이목으로 하여금 비를 내리게 하는데 이에 화가난 천제가 이목을 죽이려 한다’는 대목에서 문제가 발생해 미해결의 상태로 나아간다. 이때 보양이 배나무라고 속여 문제를 해결하고 이목은 죽었던 배나무를 다시 살아나게 한다. 자료3의 서사구조는 해결 -> 미해결 -> 해결의 구조이고 여기에서도 사건의 해결은 승려인 보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용왕의 아들인 이목은 민간 신앙으로 대표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신앙인 이목은 불교 신앙에 포섭된 상태에 놓여있다. ‘법화를 음으로 돕는다’는 구절과 보양으로 인해 목숨을 구하는 대목에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자료는 다른 설화와는 다르게 불교의 영역 속에 포섭된 용의 모습이지만 보양에게 예언을 해주거나, 비를 내리게 하고, 죽은 나무를 소생 시키는 능력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민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자료4는 앞서 살폈던 세 개의 자료와는 다르게 불교 신앙과 민간 신앙의 갈등이 가장 격렬하게 불거지는데, 먼저 안정 상태인 해결에서 ‘당나라 황실 공주의 병’이라는 문제의 발생으로 미해결 상태에 놓이게 된다. ‘혜통은 흰 팔과 검은 콩으로 주문을 외워 병마의 원인이었던 교룡을 쫓아내어’ 다시 일시적 해결을 맞는다. 그러나 ‘교룡은 신라 문잉림으로 가 인명을 해친다’라고 해서 다시 문제가 발생되어 미해결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다시 ‘혜통이 정공과 더불어 와 용을 쫓고’ 일시적 해결을 맞는다. 하지만 ‘양심을 품은 용은 버드나무로 변해 정공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혜통 또한 죽이려고 한다’ 다시 미해결의 상태에 놓이게 되나 다시 혜통의 주술로 위기를 모면해 일시적 해결을 맞는다. ‘용은 기장산에 들어가 다시 인명을 괴롭힌다’ 혜통은 불살계를 주어 재앙을 멈추어 해결로 마무리 된다. 이것을 구조화 하면 해결 -> 미해결 -> 일시적 해결 -> 미해결 -> 일시적 해결 -> 미해결 -> 일시적 해결 -> 미해결 -> 해결이 된다. 여기서 주목

해야 할 것은 거듭되는 미해결과 해결의 구조에서 해결의 과정으로 이끄는 신앙이 불교라는 것이다. 불교의 위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반복되는 미해결 -> 해결의 구조에서 이에 반하는 인물이 용으로 대표되는 민간 신앙이라는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 결국 불교 신앙에 포섭되었지만 민간 신앙의 세력 또한 무시할 수 없음을 서사에서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자료 1과 자료3은 모두 해결 -> 미해결 -> 해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료1에서 ‘자못 신령스러운 일이 많았다’라고 하여 단순히 민간 신앙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자료3에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죽은 생물을 소생하게 하는 다양한 능력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자료 2는 미해결 -> 미해결 -> 해결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미해결이 거듭 반복되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신화의 주인공인 수로왕조차도 독룡의 악행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의 설법은 저항 없이 독룡의 악행을 저지하는데 성공한다. 자료4는 해결 -> 미해결 -> 일시적 해결 -> 미해결 -> 일시적 해결 -> 미해결 -> 일시적 해결 -> 미해결 -> 해결의 구조로 다소 복잡하게 미해결과 해결이 반복된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문제 해결이 모두 불교 신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 신앙으로 대표되는 용 또한 구조의 반복을 통해 그 세력이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불교 신앙과 민간 신앙의 대립구도가 드러나는 네 개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불교 신앙이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 해결로 나아가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처용랑 망해사>의 서사구조와는 사뭇 다른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처용랑 망해사>는 불교 신앙이 오히려 민간 신앙에 압도되는 구조의 역전현상이 보인다. 그렇다면 네 개의 자료에서 보이는 불교 신앙이 압도하는 구조가 <처용랑망해사>에서는 민간 신앙이 압도하는 구조로 나타나는가에 의문

이 제기된다. 이것은 서술자의 서술태도와 관련 있어 보인다. 서술자인 일연은 앞서 살핀 네 개의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교 신앙이 압도하는 구조로 이야기들을 서술했다. 그런데 <처용랑망해사>만은 이러한 구조로 서술하지 못했다. 이것이 일연이 의도한 일이라고 보여 지지는 않는다. 일연은 헌강왕 이후의 신라의 망국을 알았다. 전성기의 정점에 달하면 기울어져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결국 기충문화에 의해 다시 재편성되는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인해 일연은 기충문화를 중심으로 <처용랑망해사>를 서술하였고, 기충문화인 민간 신앙이 부각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때문에 이 작품은 불교 신앙의 사고를 가진 일연의 사고의 틀을 깨고 존재하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신라 하대에 이르러 불교 신앙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신라의 중심 신앙으로 자리했던 이전과는 달리 지지기반의 약화와 불신으로 인해 점점 중심의 자리에서 떨어져 갔다. <처용랑망해사>는 불교 신앙의 이 같은 세력 변화를 잘 보여주는 설화이다. 불교 신앙이 무속 신앙 및 도교 신앙에 밀려나는 양상을 첨예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설화는 헌강왕과, 처용을 중심으로 동해용과 남산신, 북악신, 지신 등이 등장한다. 전체의 이야기는 해결과 미해결이 반복되다가 중국에는 미해결이라는 결핍된 상태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주인공인 헌강왕은 사면이나 사면의 능력을 소유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그는 기울어져 가는 신라의 망국을 인지하고 망국을 지연 시키고자 노력했다. 먼저 신라의 중심 신앙이었던 불교 신앙을 통해 문제 해결을 꾀

했다. 하지만 불교로서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헌강왕은 기층 신앙인 무속 신앙과 무속 신앙의 외피를 쓴 도교 신앙을 통해 분리된 구조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헌강왕의 위상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는 당대 기층문화의 저력을 인지하고 그를 이용해 구조의 통합을 꾀하려 했다. 하지만 충족된 상태가 지속될 수 없듯이 충족된 상황은 결핍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처용랑망해사> 설화는 『삼국유사』에 전하는 다른 어떤 설화보다도 불교 신앙이 무속 신앙이나 무속의 외피를 쓴 도교 신앙에 압도당하는 구조의 역전 현상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신앙의 역전 현상을 일연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기층문화 중심의 역사관으로 서술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불교가 압도당하는 모습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처용랑망해사>는 이처럼 일연의 불교 사고의 틀을 깨고 존재하는 작품이라는 데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또 설화를 통해서 당대 불교 신앙과 무속 신앙 및 무속의 외피를 쓴 도교 신앙인 민간 신앙의 세력 다툼이 치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 신앙은 표층에서 그 세력을 잃어가는 추세로 나아가고 민간 신앙은 기층에서 상당한 세력으로 자리 잡아 표층으로 그 힘을 확장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一然, 『三國遺事』
- 김나영, 「『삼국유사』 피은 편의 이해」, 『돈암어문학』 21, 돈암어문학회, 2008. pp. 135-168.
- 김무조, 『韓國神話의 原型』, 정음문화사 1988.
- 金奉斗 編譯, 『三國遺事』, 敎文社, 1993.
- 김영태, 『新羅佛敎研究』, 民族文化史, 1987.
- 김유미, 「처용전승의 전개양상과 의미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金周成, 「신라하대 왕실의 지방통치」, 『신라문화』 2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5. pp. 1-11.
- 김화경, 『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2002.
- 라정숙, 「一然의 生涯와 歷史認識」, 『지역학논집』 4, 숙명여자대학교 지역학연구소, 2000. pp1-34.
- 박희택, 「신라 하대의 불교와 정치」, 『동양정치사상사』 7,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8. pp. 125-138.
- 송화섭, 「韓國의 龍信仰과 彌勒信仰」, 『洪潤植博士停年紀念論叢：韓國文化의 傳統과 佛敎』, 論叢刊行委員會. 2002.
- 윤석효, 「신라 下代의 固有思想研究」, 『역사와실학』31, 역사실학회, 2006. pp. 5-50.
- 張德順, 『韓國說話文學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pp. 107-120.
- 全基雄, 「眞聖女大王代の 花郎 孝宗과 孝女知恩 說話」, 『한국민족문화』 25집,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2005. pp. 199-230.
- _____, 「憲康王代の 정치사회와 ‘處容郎望海寺’條 설화」, 『신라문화』 2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5. pp. 1-29.
-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集文堂, 2004.
- 崔柄憲, 「道詵의 生涯와 羅末麗初의 風水地理說」, 『韓國史研究』 11, 韓國史研究會, 1975. pp. 101-146.
- _____, 「신라시대 용신앙의 성격과 신궁」, 『용, 그 신화와 문화』, 민속원, 2002. pp. 177-202.
- _____, 「『三國遺事』 神呪第六 惠通降龍條와 新羅密敎」, 『화당학보』 7, 화당학회,

2002. pp. 193-218.

최강식,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2. 논문

郭丞勳, 『新羅 下代 後期 彌勒下生信仰의 盛行과 意義』, 『韓國思想史學』 15, 韓國思想史學會, 2000, pp. 59-92.

金基興, 『신라 處容說話의 역사적 진실』, 『역사교육』 80, 역사교육연구회, 2001.

김남운, 『신라 말 고려 초의 사회변동과 불교』, 『내일을 여는 역사』 17, 내일을 여는 역사, 2004.

김열규, 『韓國民俗信仰의 生生象徵 研究』, 『고대아세아연구』 제22집, 1966.

김창겸, 『신라 하대 왕실세력의 변천과 왕위계승』, 『신라문화』 2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3, pp. 1-23.

김현룡, 『한국 動物관련 文獻說話연구』, 『성곡논총』 28집, 성곡학술문화재단, 1997.

都洵淳, 『韓國道教의 史的 研究』, 『도교학연구』 7, 한국도교학회, 1991.

서영대, 『한국고대 신관념의 사회적 의미』,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1.

서정범, 『미르(龍)어를 통해서 본 용궁사상』, 『경희대논문집』 8집, 1974.

송봉호, 『신라시대 전통신앙과 불교의 갈등 양상』, 『종교문화연구』 제5, 한신인문학연구소, 2003, pp. 171-187.

신태수, 『『三國遺事』 <神呪篇>을 통해 본 土俗信仰의 向方』,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pp. 401-428.

신호철, 『신라의 멸망원인』, 『韓國古代史研究』 50, 한국고대사학회, 2008.

이동철, 『韓國龍說話의 類型的 意味 研究』, 중앙대석사학위논문, 1992.

이준곤, 『韓國의 創寺說話 研究 : 龍神說話를 中心으로』, 전남대박사학위논문, 1996.

河廷龍, 『『三國遺事』의 編纂과 刊行』, 『선사와고대』 11, 한국고대학회, 1998, pp. 163-174.

3. 단행본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1.

김재용·이종주, 『왜 우리 신화인가』, 동아시아, 1999.

목정배, 『삼국시대의 불교』, 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박규홍, 『韓國民俗研究』, 형설출판사, 1982.

- 박용식, 『韓國說話의 元始宗教思想研究』, 일지사, 1984.
-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上,下, 민족사, 2004.
- 이은봉, 『증보 한국고대종교사상』, 집문당, 1999.
- 이우성, 『三國遺事所載 處容說話의 一分析: 高麗 其人制度의 起源과의 關聯에서』,
『김재원박사회갑기념 논총』, 을유문화사, 1969.
- 하정룡, 『校勘 譯註 三國遺事』, 시공사, 2003.
- 황폐강, 『新羅佛教說話研究』, 일지사, 1975.

Abstract

Characteristics of Choyongrang and Manghaesa(虛容郎望海寺) In
View of Narrative Structure

Park, Yu-mi*

In the latter period of Shilla, the Buddhistic beliefs underwent many changes. Unlike the previous period in which the Buddhistic beliefs were positioned as a key belief, the Buddhistic beliefs were gradually edged away from their central position due to the weakening of their supporting grounds and also to a mistrust of them. It is possible to say that Choyongrang and Manghaesa shows evidently this changes in power shift of the Buddhistic beliefs to other beliefs, since it apparently deals with the aspect that Buddhistic beliefs were being outed by Taoistic and shamanistic beliefs.

In this tale, the characters such as Donghaeyong, Namsanshin, Bukakshin, Jishin appear with King Heon Gang and Choyong as a main protagonist. The whole story has a structure of a repetition of settlement and unsettlement of incident, which ends in the state of deficiency, that is, unsettlement. It seems that King Heon Gang was a shaman or a person with a shamanistic power. Therefore, knowing that Shilla is to be ruined, he tries to hold up Shilla which is being ruined. To begin with, he tries to settle the problem, Shilla's ruination by way of the representative belief, the Buddhistic beliefs. However, he finds out that Buddhistic beliefs are not the solution for that problem. Consequently, he intends to unify the divided structure of religious beliefs into one by way of the underlying beliefs, that is, the shamanistic beliefs and the Taoistic beliefs wearing the outer cover of the shamanistic beliefs. In his

* Finished the Ph.D. coursework in Korean Language & Literature in Yeungnam Univ.

endeavoring after the unification, we can guess his stature. Knowing the preserving strength of the underlying belief, he intends to unify the separated religious belief by way of that strength. Unfortunately, as the fulfilled status is not sustained permanently, the fulfilled status are getting out of control, and then runs into the status of deficiency.

It can be said that this Choyongrang and Manghaesa tale is more remarkable in a reversal phenomenon of structure in which the Buddhistic beliefs are overwhelmed by the shamanistic beliefs and the Taoistic beliefs wearing the outer cover of the shamanistic beliefs than any other tale in *Samgukyusa*. However, the reversal phenomenon of belief is perhaps not the intention of Ill Yun, the writer of *Samgukyusa*. Trying to describe the tale by the historical view focused on the underlying culture, he perhaps was supposed to shape the overwhelming aspect unintentionally. It can be said that this tale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is a work which came out of his out-of-the box thoughts on Buddhism. Additionally, this work tells us that at that time, there was an intense power struggle between the Buddhistic beliefs and the shamanistic beliefs and the folk beliefs, that is, the Taoistic beliefs wearing the outer cover of shamanism. While the Buddhistic beliefs were losing its power in surface culture, the folk beliefs, positioned as a considerable force in the underlying culture, were expanding the power towards the surface culture.

Key-words : King Heon Gang, Choyong, Shamanistic beliefs, Taoistic beliefs, Buddhistic beliefs, Surface culture, Underlying culture.

박유미

영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주소: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학교) 053-810-2110, 핸드폰: 011-9566-0410

전자우편: sky333@ynu.ac.kr

이 논문은 2011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1년 12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12월 26일 게재 확정됨.